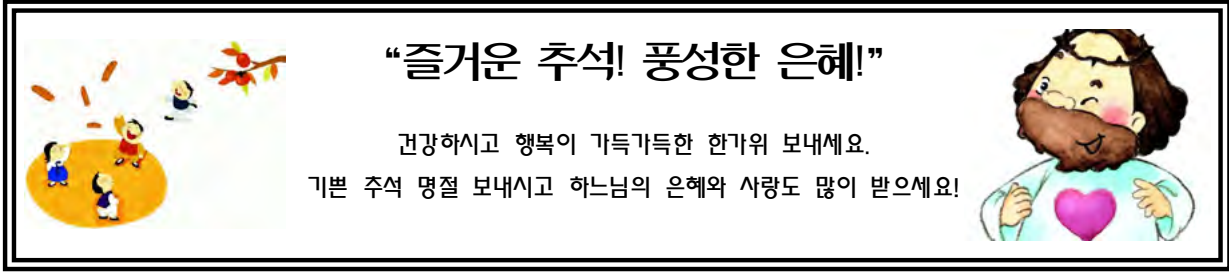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즐거운 추석! 풍성한 은혜!”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  
기쁜 추석 명절 보내시고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도 많이 받으세요!

9월 기도지향

주영길(토마스) 신부님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신자들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순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10월 구역미사 안내

새로 부임하신 주임신부님과 공동체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각 구역장님께서서는 구역분과장님과 상의하셔서 구역미사 장소와 시간을 정해 주시고, 되도록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 : 5구역  
- 일시 : 10/5(금) 오후 7시 미사  
- 장소 : 김정환 (요한), 윤 윤아(글라리) 가정  
9008 N. Lewis Ave. Kansas City, Mo 64157

창세기 그룹공부

성경 통독 모임을 마치고 새롭게 성경 그룹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창세기 그룹 공부’는 첫 과정으로써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6-7명의 그룹원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나누며 삶으로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일시 : 매 주 목요일 10시 미사 후  
- 신청 및 문의 : 주임 신부님 jooyk88@gmail.com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추석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조상님, 부모, 가족, 진척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감사와 위령미사를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봉헌은 미리 준비된 불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월 30일(주일) 오전 11시 중심미사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지난 9/29(토) 오전 11시, 해리테지 파크에서 한인회 주최 전통 먹거리 장터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23	227	163, 161	7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문석찬(요 셉)	정수한(베 드 로)
	문예나(요 안 나)	정예찬(미 카 엘)
다음주일	고영방(스테파노)	이우영(가브리엘)
	고평원(프란치스코)	이원준(요 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김명은(안 젤 라)	정준구(파비아노)
	최은미(아 네 스)	박혜정(카타리나)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김태중(예레미아)
	김주연(세실리아)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한가위(다 함께 나누어요)
다음주일	한희춘(라파엘라),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이영민(엘리사벳)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기 감사합니다!!!

<9월 23일>  
- 미사참례 : 72명  
- 주일헌금 : \$362  
- 교 무 금 : \$1150



한가위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9월 30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바람과 햇볕과 비를 주시어 곡식과 과일을 익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쁜 명절에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성거산(소학골)

대전교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소재.

성거산은 한국의 성지 중 차령산맥 해발 5백 고지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보기 드문 곳이다. 성거산 주변에는 박해 당시 신앙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이 피신하여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교우촌이 많이 산재해 있어 신앙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소학골 교우촌은 1866년 병인박해 때 여러 선교사제들이 숨어 지내며 암암리에 사목활동을 하던 곳으로, 박해 중에 많은 순교자가 탄생한 곳이다. 제1·제2 줄무덤에는 많은 무명 순교자들이 모셔져 있다.

주홍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요엘 2,22-24.26 ㄱ ㄴ ㄷ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화 답 송 :

제 2 독서 : 묵시 14,13-16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 음 : 루카 12,15-21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 말씀의 이삭

# “하느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



우리 조상들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풍요의 계절에, 달 밝은 날을 택하여, 그들이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차례 상을 차려 놓고, 돌아가신 집안 어른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베푸심이 있었기에 후손인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확한 풍요로움이 은혜롭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 두 큰 명절을 보면, 베풀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명절에 행해지는 큰 의례가 둘 다 조상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의 문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곳곳에 다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주셨다.”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연장하면, 조상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하느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인류역사가 있으면서 베품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베품의 역사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 된 문화권에서 발생한 언어입니다. 아시아의 문화권은 하느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늘이 주신 조상입니다. 그래서 중국문화권은 효(孝)를 삼강오륜의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생연분(天生緣分)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하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라는 말입니다. 효는 그 인연을 은혜로운 것으로 알고 감사드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생연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그분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형제자매를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효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권이 말하는 효라는 덕목(德目)에는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들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날 밤 그를 불러 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

우리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좁은 시야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곡식과 재산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우리 삶의 보람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닌 시야(視野)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의 최대 과제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주인공은 은혜롭게 베풀어진 생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그가 수확한 것도 베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에게는 그가 가진 모든 인연들도 소중하지 않았습니 다. 따라서 그 주인공은 베푸심의 흐름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유아독존(唯我獨尊)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한 사람의 안일(安逸)과 그것을 보장해주는 재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위 무원고립(無援孤立)의 경지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보고, 우리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단편적이라,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자신을 눈멀게 한 순간들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오늘 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이 베푸신 집안의 어른들과 형제자매들이 은혜롭다는 사실을 생각하던 이 계절에 우리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변을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은혜롭게 베푸셔서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 주변의 생명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확대해 보면서 베품의 흐름에서 이탈(離脫)하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멈추고, 돌아가신 집안 어른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먹고 마셔서 기쁘지만 한, 한가위는 아닙니다. 하느님이 보이고, 돌아가신 집안의 어른들이 보이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소중히 생각되는 날입니다.

## 마중물

#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

에스키모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늑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에스키모 사람들은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 얼리고 또 얼려서 완전히 칼날을 뒤덮어 칼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다음은 그 칼을 하늘을 향해 세워서 땅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늑대가 예민한 코로 냄새의 근원인 미끼를 찾아 얼어 있는 신선한 피 맛을 보며 그것을 핥기 시작합니다. 녀석은 더 빨리 더 맹렬히 핥기 시작해서 드디어는 날카로운 칼날이 보이기까지 핥게 됩니다. 녀석의 식욕은 너무 강렬해서 그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끝을 핥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결국 늑대는 자기가 홀린 따뜻한 피로 그칠 줄 모르는 갈증을 채우고 있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의 육식성 식욕은 아침 해가 뜨기까지 계속되어 드디어 시체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성적 유혹에 젖어드는 것은 늑대가 칼날을 핥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있고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더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망가지거나 죽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늑대처럼 얼마 동안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미끼는 결국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죄는 죽음과 파괴로 인도합니다.



## 고부들의 신앙

# 락탄시우스

### 1. 생애

아프리카 교회의 평신도로 이름을 날린 락탄시우스는 260년경 북아프리카의 이교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씨카의 아르노비우스에게서 교육을 받은 다음, 유능한 수사학 교사로 일하였다. 마침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소아시아의 니코메디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왕립학교를 세웠는데, 락탄시우스는 이 학교의 수사학 교사로 초빙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니코메디아는 희랍어를 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고 라틴어가 그곳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을 주지못하였기 때문에, 락탄시우스는 여가를 이용하여 집필 생활에 몰두하게 되었다. 300년경 드는 이곳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

한편 교회는 40년간 박해없이 평화를 누려 왔었는데,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혹독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락탄시우스는 피신하여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였고, 305년에는 수도를 떠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왔다. 311년에 갈레리우스 황제가 박해를 중단하자, 락탄시우스는 다시 니코메디아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집권 이후에는 황제의 특명으로 왕중교사가 되어 317년경부터 황제의 큰아들인 크리스푸스의 개인교사로 일하다가 321년에 사망하였다. 중세의 인문학자들은 그를 일컬어 [크리스찬 치체로]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라틴어 문장력은 뛰어났다.